

<워킹워드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말씀의 주제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계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

를 해방하시고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
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
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 1: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당신을 향한 계획을 살펴보세요.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서 적어 보세요.

인식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적어보세요.

적용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에 실천에 옮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 보세요.

기도

본문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시고 그 기도문을 <간구-선포-감사>기도로 드려 보세요.

나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눠봅시다...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반원들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봅시다.

1.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백성이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천국의 관점에서는 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라요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6절)

▶ (그룹제안)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현재 삶 가운데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2.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8절)

▶ (그룹제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이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영적으로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을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는 '감춰졌던 원래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긴 했

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알면 알수록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매우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666'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종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종말 이후에 신천지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인 내용을 배우려고 성경을 읽기도 하며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 전달 도구로 사용합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임입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았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자꾸만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며 그릇된 지식만 깨우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더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증거자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습니다. '증거'라는 말은 <마르튀리아>로 '증언',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증거자는 <마르튀스>입니다. 그런데 '증거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martyr'란 단어가 <마르튀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증거자는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순교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자만이 순교자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자도 순교자가 아닙니다. 자식

을 위해 죽는 자도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는 자만이 증거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에이도>인데 이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인식하다', '감지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충분히 인지되고 감지되고 경험된 사실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거나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에이도>입니다. 이러한 <에이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똑같이 '때'를 가리키는 단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천국의 때이지만 <크로노스>는 세상의 때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적인 공간에 묶여 살아갑니다. 때가 되어 태어났고 때가 되니 죽습니다. 때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어 대학에 들어갑니다. 때가 되니 결혼하게 되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삶이 세상의 '때'에 의해 이루어진 삶인데 이는 <크로노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적 개념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달라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

습니다. 세상에서의 10년은 정확한 10년입니다. 9년이 될 수도 없고 11년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10년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 개념과 달라서 1년이 10년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한 달이 10년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개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시간 개념입니다. 천국의 공간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천국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시간은 결코 바꿀 수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천국의 개념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간으로 병들어 고통당한 시간이 10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면 1년으로 짧아질 수 있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시간이 행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카이로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고난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고난스러운 일을 고난스럽다 여기지 않게 되며 슬퍼할 일을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유하고 강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 사람을 바라볼 때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유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들어 힘들어할 모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아픔 중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적인 개념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직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때(time)'는 언젠가 있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수백 번 읽을지라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읽는 자는 도무지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개념으로 천국적인 개념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도 도무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때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요한은 예언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로 띄웠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온 세상

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씀은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당신에게 편지를 띄웠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요한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사도 요한을 시켜서 당신에게 편지를 띄우도록 하셨으니 당신은 마땅히 요한의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

실 이”(4절)이십니다. ‘이제도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계셨다’는 말은 세상의 창조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장차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입니다.

“[마 26: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거하십니다. 스테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거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행 7:5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요한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 앞에 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4절).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늘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일곱 영'이라고 언급한 것은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를 가리키며 천국의 숫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 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

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금 오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계 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

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깊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할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육신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산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는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주님의 피는 악한 세력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줍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며 지은 죄로부

터 자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계 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께 거하는 자는 '나라'요 '제사장'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는 천국의 개념이 짙은 '나라'를 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급되고 있는 '나라'는 <에드노스>로서 이는 세상적인 개념의 '민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할 때는 민족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인이

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나라가 결정되는데, 비록 세상의 나라에 의해 우리의 거하는 나라가 정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백성이 아닌 '거룩한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나라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 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

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

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주님을 보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신부로 기다리는 자들은 오히려 주님과 기쁨의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밝혔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이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급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 것은 더욱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강력한 증거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